

제주사람들의 사회와 섬에 대한 관념: 인구이동과 제주사회*

유철인**

1. 제주사람들의 삶 : '도서성'과 '주변성'에 대한 대응

제주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든지간에 그 이야기는 濟州島의 독특한 지리적·역사적 실체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제주도, 관광지로서의 제주도, 학문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제주도나 모두다 제주도를 조건지워주고 있다고 믿는 지리적 환경과 보다 더 큰 사회와의 관계(사회문화적 환경으로서의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과정)에서 그 의미를 찾아 제주도를 표현하고 있다.

일정한 규모의 인구수와 경계가 확실히 구분된 섬이라는 '島嶼性'(insu-

* 이 글은 제주국제협의회와 제주지구 청년회의소와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의 인간과 환경」 심포지움(제주시 오리엔탈 호텔, 1992년 6월 26일~27일)에서 "인구이동과 제주사회"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것을 바탕으로 논의를 수정·확대한 것이다. 이 글에서의 제주사회에 대한 논의는 본인이 이미 발표했던 글들(참고 문헌 참조)에서 제시되었던 논의의 기본 틀과 큰 차이는 없으나, 인구이동이라는 현상에만 초점을 두어 정리해 본다는 점에서, 또한 제주사회에 대한 본인의 그 동안의 논의에 대해 보다 활발한 토론의 장을 소위 학문한다는 사람이나 제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글을 발표한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인류학 전공)

larity)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적응은 “분산된 사회단위” 수준에서의 통합(유철인 1986: 86)과 도서환경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제주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유철인 1984: 134-136). 분산된 사회단위 수준에서의 통합은 (1) 공동어장과 공동목장의 형태로 나타나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이용(유철인 1991a), (2) ‘對面關係의 사회’ 즉 ‘아름으로’ 일이 되는 사회에서의 사회구성원들간의 관계와 공동체의식(유철인 1986), (3) 향토문화(folk culture)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외부인과 원주민의 구분으로 표현된다(유철인 1984).

제주사회와 ‘육지부’로 표현되는 보다 더 큰 사회와의 관계를 한국의 산업화와 지역개발의 전개과정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한국사회 내에서 제주사회가 주변사회로 종속되는 것”(이상철 1987)으로 파악될 수 있다. 제주사회를 주변사회로 규정된 것은 한국자본주의의 요구에 따라 산업측면에서 관광산업을 분업적으로 제주도가 떠맡도록 한 국가사회의 이데올로기라 하겠다. 제주도 성장의 주도산업으로 관광과 감귤농업이 자리잡게 된 결과, 현재 제주사회의 산업구조와 계급구성은 전체 한국사회와는 다르게 나타나는데(이상철 1987, 황석규 1985), 이러한 제주사회의 성격변화는 한마디로 “발농사적인 체제에서 바로 산업화 체제로 ‘건너뛰는’”(조혜정 1985) 변환이라 하겠다. 외부에 의해 촉진된 산업화 과정에 따라 갑작스럽게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제주사람들의 삶은 제주/육지간의 관계와 산업화 과정에 따라 규정된 ‘周邊性’에 대한 대응의 모습을 띠게 된다. 이 글에서는 제주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도서성에 대한 적응의 결과인 대면사회의 속성과 제주/육지간의 관계 속에서 주변화된 산업사회의 속성이 공존 또는 경쟁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인구이동이 제주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에 대해 두가지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육지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제주사회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가, 둘째는 제주도의 부속 도서와 제주도 간에 거주지를 자주 바꾸는 유동인구가 부속 도서 마을의 사회통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2. 육지부로부터의 인구이입 : 산업화의 과정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자료를 보면, 濟州道 인구 중 본도 출생자의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차차 타도 출생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1960년 제주도 전체인구의 95.4%가 제주도 출생자이며, 1970년은 93.7% 그리고 1980년은 88.8%의 인구가 제주도 출생자이다. 다른 지역에는 자기 지역 출생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 1980년 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전남은 전체인구의 95.7%, 전북은 92.3%, 경북은 88.1%, 경남은 84.3%가 각각 자기 道 출신이었다. 서울은 전체인구의 41.5%만이 서울 출생자이며, 부산도 이와 비슷한 42.7%가 부산 출생자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육지부 사이의 인구이동을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1960~1965년은 이입초과기, 1965~1970년은 정체기, 1970~1975년은 이출초과기, 1975~1980년은 다시 정체기로 나타난다(이창기 1985). 제주도로 들어온 이주자들의 이입전 거주지를 보면, 65~70년 사이의 총 이입자 14,925명 중 서울로부터의 이주자가 15.7%, 전남으로부터의 이주자가 36.8%를 차지하였으며, 70~75년 사이에 이주해 온 20,056명 중 서울로부터의 이주가 19.8%, 전남으로부터의 이주가 38.1%에 이르고 있다. 75~80년 사이에는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주자가 늘어나고(23.4%), 상대적으로 전남지역으로부터의 이주는 줄어들었다(28.5%). 제주도 인구이동의 방향을 종합해 보면, 계속해서 전남과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제주도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대개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육지의 도시지역으로 나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이창기 1985).

1980년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한 이주자들의 취업상태를 보면, 1975~1980년 사이에 제주도에 들어온 인구 21,474명 중 14세 이상의 인구는 17,509명으로, 그 중 경제활동 인구는 11,664명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11,181명의 취업상태를 보면, 생산·운수·단순 노무직이 31.1%, 농·축·임·수산직이 23.9%, 서어비스직이 16.9%, 판매직이 12.4%, 관리·행정·사무직이 9.2%, 그리고 전문기술직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육

지로부터의 이입인구는 단순 노무직과 농수산업에 많이 취업하고 있다.

육지에서 이주해와 제주시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구수가 1, 2세대를 합쳐 1984년 현재 약 9만명으로 제주시 인구의 반을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연구(황석규 1985: 28)에서는 제주시 인구유입의 이유로 제주시 산업의 변화, 즉 관광개발로 인한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점을 들고 있다. 1983년 산업별 인구구성비를 보면 제주시의 취업자 중 71.3%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1955년 읍에서 시로 승격될 당시만 해도 제주시의 산업구조와 기능은 조선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었고, 인구도 3~5만 정도였다. 그러나 1970년대 몇 차례 시행된 도시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과 신시가지의 건설이라는 두가지의 전략을 사용하여, 제주시의 공간구조와 사회가정이 관광산업과 밀접히 연결되도록 급격히 바꾸어 놓았다(조성운 1986).

제주사회로의 인구유입이 제주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제주사회가 섬이라는 상황때문에 본토에서 한번 유입된 인구의 귀환이동이 쉽지 않다(황석규 1985: 25-28)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시로의 이주자들의 연구가 대개 하층 이주자들의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에 반해 황석규(1985)는 제주시에 들어온 상층 이주민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왜 상층 이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택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단지 고백하기를, “본 연구자의 출생지이자 성장지인 제주에서의 생활경험은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이주민들의 사회참여의 정도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는 연구자가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배경이 되고 있다”(황석규 1985: 33)고만 적고 있다.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이주민들은 단순노무직과 농수산업에 취업하고 있는데도 숫자가 적은 상층 이주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상층)이주민들의 제주사회에서의 사회참여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고, 그 영향력이 크다고 제주도 출신의 연구자가 느꼈기 때문이다.

육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의 적응양상은 계층이나 직업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하층 이주민들은 자기들만의 하위지역사회를 통해 정착하면서 귀환이동이나 다른 도시로의 이주선호도가 높은 집단이다(황석규 1985: 38

-40). 조직부문 상층 이주민들(고위전문직, 정부관리직, 정부행정직, 일반관리직 종사자)은 그들의 교육수준과 직장의 진출에 의한 이주이기 때문에 거주년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류계층을 점하고 있으면서 대도시나 다른 도시로의 이주를 갈망하게 되며, 이주해 올때부터 일시적 거주지로 생각하고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황석규 1985: 58). 이에 비해 비조직 부문 상층 이주민들(자영업자와 부농)은 개업이라는 이주동기에 의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간 거주했으며, 원주민 집단과의 관계가 밀접하다(황석규 1985: 42, 44).

대개의 이주민들은 이동의 종착지인 생활근거지의 생활양식에 적응하여야 하는데, 제주도에 오는 이주민들은 특히 공식부문에 속하는 사람들(상층 이주민)일수록 이동의 출발지의 생활양식을 제주도에 은연중 퍼뜨리는 양상이 되어 제주사회 내에서 반감을 일으킨다(유철인 1986: 84-86). 한 사회에서 외부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 문화의 논리인데, 사회에 대한 관념을 다르게 느끼는 사람은 그들 사회의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식부문에 속하는 상층 이주민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외부인으로 제주사회에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육지사람들은 제주도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제주사람과는 제주사회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 것이다. 제주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관념은 對面社會라 할 수 있으며, 이주해 온 육지사람들의 관념은 産業社會라 하겠다.

3. 인구유동과 공동체의식 : 비양도와 마라도의 경우

제주도의 부속 도서와 제주도간의 인구이동이 제주도의 부속도서 마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제주도와 육지간의 인구이동이 제주사회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사하는 점이 많다. 제주대 사회학과 정대연 교수와 본인이 공동으로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우도의 주민들의 삶에 대해 조사한 결과(정대연 외 1991)를 보면, 섬의 크기나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비양도와 마라도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주민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출타함으로써 인해 마을 공동체의

식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민등록상의 인구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원이용의 잇점 때문으로, 산업주의가 공동체 의식이나 定住 의식보다 앞서는 결과를 보여준다.

비양도의 마을은 포구를 중심으로 한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있는데, 빈집이 많다. 주민등록상의 가구는 67가구이지만 경찰초소, 학교,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64가구 중 실제 거주하는 주민가구수는 계절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10가구가 넘게 한림읍이나 (제주)시에 집이 있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곳 보건진료소의 자료를 보면 상주하는 가구가 42가구에 불과하다. 인구수에 있어서도 행정통계상의 인구수는 남자 142명, 여자 149명, 총 291명으로 나와있지만(1990년 북제주군 통계연보), 비양도의 상주인구는 남자 44명, 여자 69명으로 총 113명에 불과하다(1991년 보건진료소 자료). 남자가구주들의 출생지를 보면, 56.3%가 이 섬 출생이다. 이주하여 들어온 남자가구주의 대부분은 한림읍 출생이며, 평균적으로 약 26년간 비양도에 살고 있다.

비양도 주민들의 계절적 이동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체냥기 어업으로 갈치나 오징어를 잡기 때문에 선원들이 많이 들어와 사는 등의 유동인구가 많아, 비양리는 안정된 마을 공동체라기보다는 어업전진기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해녀들이 양식장에 共同入漁를 하는 과정을 보면, 입어하는 날에는 평소에 배를 타는 부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물(제주도나 육지)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입어할 날짜가 공고되면 그 날에 맞추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에 있나를 확인해서 공동입어를 한다. 그러나 해녀의 작업은 근본적으로 협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입어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공평하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뿐이다.

자원의 공동이용이라는 측면에서나 외부세계와의 관계에서는 비양도가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 가능하지만, 인구가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양도에 상주하는 인구수와 주민등록상의 인구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자원의 이용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섬과 섬 밖으로 주거를 이동하는 사람

들이 적지않고, 고기 잡는 철에 따라 선원들의 유입 등 유동인구가 많다는 사실은 비양도가 하나의 마을공동체나 주거지로서의 기능보다는 어업전진 기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하겠다.

마라도의 가구수는 행정통계상 27가구인데, 학교, 경찰초소, 해운항만청 항로표지관리소 등 관공서를 포함한 것이다. 학교나 기관때문에 잠시 들어와 사는 가구를 포함하더라도 실제로는 16가구 19세대만이 살고 있다 (1991년 현재). 더군다나 이들 중 2세대는 모슬포와 마라도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인구수 역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남자 52명, 여자 47명, 총 99명으로 되어있지만, 1991년 현재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은 남자 18명, 여자 19명, 총 37명에 불과하다.

마라도는 개척 초기에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누이바꿈”으로 이주민 가족끼리 통혼하여 현재는 친인척으로 얽혀있지만(이기욱 1984), 마라도가 주민들에게 주는 의미가 다양해지면서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라씨 집안은 4대째 살아오는 집안으로 현재 라씨 남자 가구가 3, 라씨 여자 가구가 4가구 있는데 모두다 4촌간이다. 또한 김씨 집안도 남자 가구가 3, 여자 가구가 한 집 있으며, 친가로 따지면 조카며느리고 외가로 따지면 조카딸인 관계도 있다. 이렇게 해서 13세대는 친인척관계로 얽혀 있으며, 나머지 6세대는 타지에서 들어온 가구였다.

그러나 남자가구주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마라도 출신은 28.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개 가파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평균 거주기간은 약 18년이다. 그러나 조사대상가구의 58.3%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있어, 마라도는 “이주자들의 중간 거처지”가 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서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직접적인 이득을 주는 일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다”(이기욱 1984: 183). 다시말해 자원의 이용에만 관심이 있는 셈인데 그 자원이라는 것이 결국 해녀들의 물질로 채취되는 것이다. 현재의 관심은 3, 4년 전부터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다. 마라도의 주소득원이 물질과 상업소득이며, 16가구에 민박집이 5군데, 가게가 셋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또한 농사를 더이상 짓지 못하고 소파동으로 소를 다 팔아버린 현재로서는 토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즉 토지자원에 대한 공동이용에서 차차 개개인이 소유하려는 바람이 커지고 있다. 토지 소유 형태는 원래 국유임야지로 있던 것이 최초로 이주한 개척민 6명의 명의로 등기된 후 현재는 주민들의 공동목장으로 재등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1969년에 만든 「마라도 공동목장조합 규약」을 보면 제4조에 “본 조합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5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 조합장은 “지금 이 땅을 분할해 주어야 내 개인 땅이 된다. 나 자신도, 팔아서 나가서 살면… 빨리 조치가 풀려서 분할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다. 이는 외지 사람들이 마라도 땅을 사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 후에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1987년도 마라도 공동목장조합 회의록을 보면 조합원이 18명이었고 회의에 참석한 인원도 18명인데, 이 중 6명은 현재 마라도에 살고 있지 않다.

마라도의 주 소득원의 하나인 물질의 경우, 돈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은 비양도 사람들처럼 이중살림을 한다. 즉 물질할 때만 마라도에 있고, 물질 안 할 때는 모슬포에 나가 산다. 따라서 마을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마을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광객의 유입으로 그 이득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사이가 벌어지는 느낌이다. 관광객의 증가로 현재 마라도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과거 제주도 전체가 밟은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한 민박집은 관광객을 상대로 활어를 팔기 위해 조사기간 중 공사를 했는데, 이에 필요한 물을 공동저수지 물로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외지에서 와 마을 일도 관심 없고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고 욕을 하였다. 집집마다 빗물을 받아 저장하는 탱크가 있지만, 공동저수지의 물은 비상시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데 한 개인이 공사에 필요한 물로 마구 쓴다는 것이다.

마라도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주민등록상의 인구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물질할 때만 마라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지않고, 실제 거주하는 인구보다는 훨씬 많은 외부인들이 관광객으로 잠시 머물다 간다는 사실을 볼

때, 외부인이거나 마라도 주민 자신들이거나간에 모두 마라도를 하나의 '마을'로 보기보다는 마라도가 한국 최남단의 섬이라는 사실과 마라도의 자원 이용 측면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4. 인구이동의 사회적 의미 : 대면사회와 산업사회의 공존과 경쟁

제주사회가 일정한 규모의 인구수와 경계가 확실히 구분된 땅이라는 조건에서 나타나는 대면사회지만,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제주도와 육지간의 인구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사회는 결코 폐쇄된 닫힌 사회일 수는 없다. 따라서 제주사회에는 대면사회와 산업사회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두 사회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제주사회가 섬이라는 사실, 둘째, 외부에 의해 주도된 관광개발형 산업화가 제주사회에 그냥 주어져서 일방적으로 제주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특성보다는 대면사회의 속성이 더욱 강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인다(유철인 1990: 114, 1991b: 55-56). 그 이유는 도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통합의 원리가 산업화 이전의 제주도에서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한정된 지역사회에 일정한 인구규모가 살고 있는 현재의 제주도에서도 여전히 의미있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빠르게 산업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제주도는 섬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대면사회의 바탕 위에 움직이고 있다.

대면사회를 위협하는 외부인은 하층 이주민 보다는 상층 이주민이기 때문에, 실제로 육지에서 이주해 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단순노무직과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제주사회에서의 관심은 상층 이주민들에게 있다. 이러한 관심은 도서환경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는 이데올로기와 제주사회의 분산된 사회단위 수준에서의 통합-‘끼리끼리’로 불릴 수 있는-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므로 대면사회를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부속 도서와 제주도간의 인구이동 즉 부속 도서 주민들의 주거지 이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육지사람의 이주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는 다

르다. 보다 더 큰 사회(육지부 또는 한국사회)에서 제주사회로 들어오는 육지사람들의 이주·정착 과정은 제주사회로 하여금 대면사회의 통합을 심정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강화시켜 제주사회의 통합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산업화 과정 중에 나름대로 작용하도록 한다. 반면에 부속 도서와 제주도간의 인구이동은 부속 도서라는 작은 사회에서 종종 물이나 시로 표현되는 보다 더 큰 사회(濟州島라는 섬)로 이주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고향인 작은 섬으로 때 맞춰 들락거리는 두 집 살림을 하거나, 주민등록만은 바꾸지 않은 채 큰 섬(濟州島)으로 이주해 나가는 양상을 띠면서 부속 도서 마을의 통합을 약화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대면사회의 속성—예를 들면, 공평한 자원 이용과 공동체 의식—보다는 산업사회의 속성—예를 들면, 이윤의 극대화, 자원 이용의 극대화, 교육의 중요성 등—이 주거지 이동에 작용하고 있다.

주거지 이동을 한 부속 도서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 또는 일시적 거주지로서의 자기 마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가 사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하리라 본다. 지금까지 제주사회의 관심은 육지사람이 제주도에 이주해 와 사는 경우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주도에서 다른 곳으로移出한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며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제주도 부속 도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부속 도서로 일시적 귀환이동을 하는 사람들과 아주 濟州島에 정착한 부속 도서 출신 사람들이 각각 부속 도서와 제주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유철인, 1984. “일상생활과 도서성: 제주도 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제주도연구」 1: 119-144, 제주도연구회.
- , 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탐라문화」 5: 71-9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 1990. “해석인류학과 생애사: 제주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의 모색”. 「제주도연구」 7: 105-117.
- , 1991a. “제주의 마을: 비양도, 마라도, 가파도, 우도”. 제주도연구회 제 48회 연구발표회 (1991년 10월 5일, 제주대) 발표논문.
- , 1991b. “제주사회의 변화(1946-1991년): 국가사회와 지역문화의 역동적 관계”. 「제주도」 91: 52-57, 제주도.
- 이기옥, 1984. “도서와 도서민: 마라도”. 「제주도연구」 1: 145-209.
- 이상철, 1987.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8(3): 31-66.
- 이창기, 1985. “제주도의 인구이동: 1965-1980”. 제주도연구회 제1차 전국학술대회 (1985년 11월 15-16일, 호텔 제주로얄) 발표논문.
- 정대연, 유철인, 김영희, 1991.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유인도 학술조사」, 271-384 쪽,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제주도.
- 조성윤, 1986. “제주도 도시 개발의 기본 구조”. 「사회학연구」, 네째책, 123-158 쪽, 사회학연구소.
- 조혜정, 1985. “근대화에 따른 성역할 구조의 변화: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제 17회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논문.
- 황석규, 1985. 「도시내 상층 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